

노동정책연구
2021. 제21권 제2호 pp.37~68
한국노동연구원
<http://doi.org/10.22914/jlp.2021.21.2.002>

연구논문

시간빈곤인의 노동시간 특성에 관한 연구

신영민*

이 연구는 시간빈곤(time poverty) 상황에서의 비사회적 노동시간(unsocial hour)의 특성을 분석한다. 대체로 남성은 장시간 노동에서, 여성은 장시간 노동과 돌봄·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서 시간빈곤이 유발된다. 기존의 시간빈곤 연구는 시간빈곤 실태와 원인, 삶의 만족도, 일-가정 양립도와 시간빈곤의 관계 등을 다양하게 규명하였으나 유·무급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의 길이, 즉 양적 특성에 주로 주목하여 시간빈곤인의 시간대에 따른 시간 배분과 같은 질적 차이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시간빈곤과 다양한 노동시간 배치(working time arrangements), 그중 비사회적 시간 노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5차 생활시간조사(2019)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간빈곤율은 약 20%이며, 여성, 30대, 전문대졸 학력, 비숙련직의 시간빈곤율이 높다. 시간빈곤은 시간비빈곤 상황에 비하여 주중·주간 노동시간도 길지만, 주말과 야간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 시간빈곤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야간 및 주말 노동시간의 차이에는 주로 직종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시간빈곤인 경우 주말 및 야간노동의 차이는 대체로 여성일 때 유의하였다. 이는 남성은 시간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시간이 표준화된 반면, 시간빈곤 여성은 가사와 돌봄노동에 장시간 노동까지 하며 이들의 일자리가 비정형, 야간과 주말노동에 연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핵심용어 : 시간빈곤, 비사회적 시간, 노동시간 배치형태, 자유시간, 장시간 유급노동

논문접수일: 2021년 2월 1일, 심사의뢰일: 2021년 2월 8일, 심사완료일: 2021년 3월 17일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ymshin@korea.ac.kr)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시간빈곤(time poverty) 상황에서 비사회적 시간(unsocial hour)의 노동 특성을 분석하여 시간빈곤인의 구체적인 시간활용 실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시간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자유시간 내지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이 부족한 상황을 말한다. 시간빈곤은 그간 여성에게 지워진 가사 및 노동의 이중의 짐(dual burdens)에 대한 문제, 빈곤과 다차원적 불평등의 한 차원으로 주목받아 연구되었다. 국내의 시간빈곤 연구는 개인의 자원 중 하나로 시간에 주목하여 구체적인 실태와 영향을 분석하였다(대표적으로 노혜진·김교성, 2010; 노혜진, 2013; 오혜은, 2017; 서지원, 2015 등). 다만 시간빈곤 연구는 대체로 1일, 1주 등 단위 기간 내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자유시간의 차이나 시간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간빈곤에 따른 삶의 만족도, 일·가정양립도 차이 등에 주로 주목하였다(박예은 외, 2015; 김미영·박미려, 2017 등). 이는 시간빈곤의 원인과 실태를 규명함에 효과적이었으나 시간빈곤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 활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즉, 그간의 연구는 주로 시간빈곤의 양적인 차이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또한 시간빈곤의 원인 중 하나가 장시간 유급노동임에도 그간 주로 여성의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적 부담에 주목하여 가구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됨에 따라 유급노동시간의 특성과 시간빈곤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였다(예외적으로 이경희·김근주, 2018; 박예은·이미영·이초록, 2017; 조아라·김명희·권현정, 2020).

따라서 이 글은 시간빈곤 상황에서의 유급노동시간 특성, 특히 비사회적 시간인 주말과 야간의 시간활용을 분석한다. 1982년 야간통행금지 조치 해제 이후 현재 우리는 24시간 시대를 살고 있으며(김학선, 2020), 노동시장 유연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로 노동 시간대와 형태가 다양해졌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야간과 주말 노동은 좋은 노동시간(decent working time)과는 거리가 먼 기피되는 시간이다. 역사적으로도 표준 고용형태의 노동시간은 ‘나인 투 식스(nine to

six)’ 였다.

물론 장시간 노동사회의 특성상 전 직종과 업종에서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현재도 야간 및 주말 근무가 적지 않다. 그러나 표준 노동시간이 주중·주간인데 비하여 대표적 비정형 일자리인 특수고용직의 택배기사나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은 주말과 야간노동이 빈번하고 노동시간도 불규칙하여 시간 주권이 취약한 편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80).

시간빈곤이 시간의 절대적, 상대적 부족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간빈곤의 원인은 장시간 유급노동이거나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병행에서 초래되며, 노동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비사회적 노동시간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이 부족할수록 좋은 노동시간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간빈곤과 노동시간 배치형태(working time arrangements)의 관계, 시간빈곤의 질적 특성을 탐색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시간빈곤에 관한 주요 연구와 국내의 시간빈곤 연구 동향, 노동시간 배치와 비사회적 시간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여 연구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다. 시간빈곤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과 성차별적 가사 분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시간빈곤의 정의, 분포와 특성, 소득빈곤과 결합된 이중빈곤(dual poverty) 등 다양한 주제로 확장되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상대적으로 시간빈곤 상황과 특정 시간대의 시간배분과 같은 특성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이는 노동시간의 다양한 질적 특성을 분석하려는 노동시간 배치형태와 결부시킬 수 있다. 3장에서는 연구과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한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변수를 논의하고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시간빈곤 상황에서 비사회적 시간대의 노동시간 특성을 분석한다.

II. 시간빈곤과 비사회적 노동시간

시간은 개인의 자원이지만 소득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에는 한계가 없으나 시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의 상한이 있다(Brady et al., 1995). 둘째,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무언가

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Burchardt, 2009; Merz and Rathjan, 2009). 그러나 동일한 배분과 소비라는 시간자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별과 사회적 지위, 계층에 따라 시간활용 형태는 상이하며 시간 재량권 역시 다르다는 점이 시간빈곤 연구의 출발점이다(Warren, 2003). Vickery(1977)는 소득만이 빈곤의 원인과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면, 가구의 시간불평등이 심화되어 시간 부족이 소득 빈곤을 유발하는 기제를 차단하지 못하고, 특정 유형의 가구가 형성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녀가 있는 외벌이 여성 가구나 여성 한부모 가구가 시간빈곤에 취약하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소득만이 아니라 시간빈곤 역시 결혼과 출산, 육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으며 현재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도 일정한 함의를 제시한다.

Vickery(1977)는 시간빈곤을 수면과 식사, 개인 정비 등의 필수유지시간(necessary time)과 유급노동시간을 차감하고 남은 시간, 즉 가구 유지를 위한 가사, 돌봄 등의 헌신시간(committed time)이 일정한 기준선(전업주부의 가사 시간)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이와 같이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이나 헌신시간이 일정한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시간빈곤의 절대적 정의라 하였다. 절대적인 시간빈곤 기준선 측정에는 유급노동시간이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활용되며(가령 Douthitt, 2000; Harvey and Mukhopadhyay, 2007), 일정한 기준에 의하기에 비교 집단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분명하고 따라서 국가 간, 시점 간 비교에도 용이하다. 그러나 절대적 시간빈곤은 연구자의 자의적, 사후적 가정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특히 헌신시간이 전업주부를 기준으로 고정됨에 따라 시간빈곤 여부는 가구의 유급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가구의 가사노동이나 돌봄 특성이 고려되기 어렵다(Kalenkoski, Hamrick, and Andrews, 2011). 이 점에서 필수유지시간과 헌신시간, 유급노동시간 차감 후 남은 자유시간이 조사집단 중위값의 임계선 이하인 경우를 시간빈곤으로 정의하는 상대적 기준도 있다. 이는 연구자의 자의적 가정이 반영되지 않아 최근의 연구는 대체로 상대적 정의를 따른다(가령 Chatzitheochari and Arber, 2012; Bardasi and Wodon, 2006, Burchardt, 2008; Goodin et al., 2005; Kalenkoski, Hamrick, and Andrew, 2011, Arora, 2015 등). 다만 자의적 가정의 배제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간빈곤 상황이 상대적으로 정의되기에 시간빈

곤율은 모집단의 차이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시간빈곤을 어떻게 정의하든 초기에 자원의 빈곤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던 것에 비해 이후의 연구는 계층적 차이와 불평등에 관한 시각으로 확장하여 성별, 계층별 시간 활용과 가사 배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간빈곤의 계층적 차이가 시간에 대한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삶의 주도권 차이로도 이어짐을 강조하였다(가령 Warren, 2003). Vickery(1977)와 같이 유급노동 및 가사노동의 성분업적 역할 분담으로 맞벌이 가구 여성과 여성 가구주에 가해지는 유급노동, 가사의 이중 부담이 시간빈곤을 초래하는 일차적 원인으로 지적되었다(Choudhary and Parthasarathy, 2007; Sidh and Basu, 2011). 성분업적 역할 인식과 가부장적 문화가 강할수록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많은 무급노동(unpaid work)을 수행하며, 이러한 대가 없는 노동에 지출되는 시간의 상쇄관계로 인하여 여성은 시간빈곤만이 아니라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에 빠질 위험 역시 높다(Sousa-Poza et al., 2001; Dong and An, 2015). 이러한 빈곤의 여성화(feminisation of poverty) 경향은 일견 모잠비크, 중국, 한국, 인도와 같이 성분업적 역할과 가부장제 문화가 강한 제3세계에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Dong and An, 2015; Noh and Kim, 2015; Arora, 2015; Irani and Vemireddy, 2021)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시간빈곤의 성별 차이는 존재하며 일차적으로 시간빈곤은 상기 요인으로 인하여 여성화하는 경향이 있다(Zilanawala, 2016).

물론 시간빈곤에 성별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맞벌이 부부라도 노동계급과 중산층의 시간빈곤 경험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가사노동 분담만이 아니라 유급노동시간 특성, 가구소득, 돌봄 필요인의 유무 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는 업무 일정의 연속성, 삶에 대한 자기 통제와 직결된다. 상류층은 단순히 소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시간 역시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여 시간 부족을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고 자신의 노동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반면(Reisch, 2001; Arora, 2015: 216), 빈곤층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계획적,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¹⁾ 이와 반대로 시간빈곤과 일-여가

1) 이는 결국 역량(capability)의 계층적 차이로도 귀결된다.

의 갈등이 전문직과 중상류층에서 좀 더 빈번하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예를 들어, McGinnity and Calvert, 2009; Hamermesh and Lee, 2007). 다만 해당 연구에서 전문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간압박감(time stress)은 주관적인 기준인 동시에, 압박감과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업무 일정(schedule)을 조정할 여지가 있으며 전문직 특성상 업적의 성취와 달성은 결국 재량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은 전문직, 중상류층에서 상대적으로 크다는 반론도 있다(Warren, 2003). 요컨대, 시간빈곤은 성별, 계층, 가구적 요인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노혜진·김교성, 2010).

국내에서도 가구 내 남녀의 불평등한 가사노동 분배와 여성에게 지워진 이중의 부담을 밝히며 시간빈곤 실태와 원인, 시간빈곤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일·가정 양립 수준의 차이를 밝히려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노혜진·김교성(2010)은 시간빈곤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의 시간빈곤 실태를 체계적으로 논의한 시론적 연구로,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고 가구의 돌봄 필요가 증가할수록 시간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한편, 저학력, 무배우자 이면서 연령이 높은 경우 소득과 시간 모두 부족한 이중빈곤의 위험성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노혜진(2013)은 시간빈곤 연구의 자유시간이 잔여적 의미로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가구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소득과 가사노동시간을 고려한 재량시간을 통하여 시간빈곤을 측정 및 논의하였다. 노동패널과 생활시간조사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의 빈곤수준이 높으며 시간비빈곤 여성가구주의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심각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혜은(2017)은 자유시간의 중위값 60%라는 상대적 기준을 차용, 시간빈곤과 이중빈곤 실태를 노동패널 17차년도 부가조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시간빈곤율은 약 20% 가량이며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혜진·김교성(2010), 노혜진(201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저소득층 여성 유배우 가구주는 이중빈곤 위험 역시 높다는 점을 밝혔다. 그 외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및 여성가구주, 맞벌이 가구일수록, 가구 내 돌봄수요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시간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다(박세정, 2020; 박예은 외, 2015; 김미영·박미려, 2017 박예은 외, 2017 등). 다만 이경희·김근주(2018)에 의하면 시간빈곤율은 24.6%로 앞서 오혜은

(2017)에 비하여 다소 높다. 이경희·김근주(2018)는 시간빈곤의 가구 특성 외에 유급노동시간과 관련한 일자리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는데, 시간빈곤율은 30·40대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U자형 관계이고 자영업자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업종 특성은 여성에게서만 나타나고 서비스업종 여성의 시간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객관적인 시간빈곤 상황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압박감, 미래에 대한 기대 역시 시간비빈곤 인구에 비하여 저조하며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피로감, 워라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조아라·김명희·권현정(2020)은 일자리 특성으로 서론에서 언급한 특고의 시간빈곤 및 워라벨의 관계를 분석, 특고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시간빈곤율이 높고 일과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역시 낮음을 밝혀 비정형 노동이 시간빈곤에 취약할 수 있음을 보였다. 동시에 일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정책이나 사회보장제의 변화는 특고의 노동시간 개선에 유의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국내의 시간빈곤 연구는 그 원인과 시간빈곤인의 특성, 시간빈곤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다만, 시간빈곤 집단과 시간비빈곤 집단 간 각 유형시간 차이와 이로 인한 잔여적 자유시간의 차이에 주로 주목하여 시간빈곤과 시간비빈곤 상황에서 자유시간이 집중되는 시간대, 자유시간과 업무시간의 연속성, 자유시간의 배치와 구성에 따른 자유시간의 질적 차이, 개인의 시간 자율성 차이 등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였다.

가령 시간빈곤 연구 중에서도 Chatzitheochari and Arber(2012), Bittman(2005) 등은 주말의 시간빈곤과 자유시간의 연속성, 자유시간 중의 동시행동 여부를 분석하여 단순한 시간의 양보다 타이밍, 시간 주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여성은 자유시간이 있더라도 돌봄 혹은 가사노동을 병행하며 이러한 중첩되는 활동(overlapping activities)을 간과하면 체계적인 자료의 편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Floro, 1995; Chopra and Zambelli, 2017). 여성의 멀티태스킹이 빈번한 것은 결국 시간빈곤 상황에서 초래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동시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량의 자유시간을 누리더라도 자유시간의 질이 떨어지고 업무강도가 강화되며, 여성의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Jain and Zeller, 2015).

Sullivan(1996), Bittman and Wajcman(2000), Fagan(2001)은 이러한 자유시간의 질적 차이를 교대제 및 비사회적 시간 노동 등의 일자리 특성과 결부하면서 시간의 계층적 차이가 단순히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의 질적 차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였다. 가령 전문직, 중상류층과 저소득층이 같은 시간빈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업무시간 구성의 자율성이나 자유시간의 선택권에서 질적 차이가 발생한다. 전자가 업무 스케줄과 일정을 조율할 여지가 있거나 업무시간의 강도는 강한 대신 자유시간을 연속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반면, 저임금·저소득층은 시간 자율성과 이에 따른 시간 구성에서 파편적·의존적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국내의 연구에서도 노혜진(2013) 및 이정희·김근주(2018)의 논의는 재량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빈곤을 정의하거나 고용 변수와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연차사용 실태 등을 분석하여 이러한 질적 차이로 접근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간빈곤에 대한 양적인 접근이 일반적이다. 예외적으로 이정희·김근주(2018)가 일자리의 다양한 특성과 시간빈곤을 분석하고 있으나 대체로는 가구특성 변수에 주목하고 있어 유급노동시간 측면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였다.²⁾ 정리하면 단순히 자유시간의 양적인 차이만 아니라 동시적 행동의 존재, 자유시간의 (불)연속성, 자유시간의 시간대와 같은 질적 차이 역시 중요하며 이러한 질적 차이는 유급노동시간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는 시간빈곤 상황을 노동시간의 질적 특성과 접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데, Anttila et al.(2015)은 노동시간에 대한 다차원적 특성의 분석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노동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① 노동시간의 기간(duration), ② 타이밍(timing), ③ 비사회적 시간의 길이, ④ 업무의 강도와 자율성(tempo and autonomy), ⑤ 공간적 유연성(spacial flexibility)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함을 보였다. 즉 노동시간의 길이가 동일하더라도 노동시간 배치형태(working time arrangements)에 차이가 있다면 노동시간의 질적 차이

2) 물론 이러한 기존 연구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시간빈곤의 경우 대체로 장시간 유급노동은 전제가 되면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시간빈곤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다만 가사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병행하는 여성은 대개 미취학 자녀를 두거나 경력단절 후의 재취업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며 얻는 일자리가 대체로 장시간, 비정형 노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유급노동의 특성 역시 조명될 필요가 있다.

가 발생한다.³⁾ Chung and Tjijdens(2013)는 노동시간 유연성을 주제로 비사회적 노동시간의 길이, 장기휴가제도의 유무, 자발적 시간제 전환 가능성 등 노동시간 관련 관행 10가지를 요인분석하여 국가 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노동시간 배치 연구는 시간빈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첫째, Chatzitheochari and Arber(2012), Bittman(2005), Chopra and Zambelli(2017)와 같이 시간활용의 질적 차이를 강조하며 이러한 질적 차이의 차원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여 개인의 시간빈곤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러한 노동시간 배치형태의 다양한 차원을 모두 분석하는 것이 장기적 목적이지만 우선 여기서는 이러한 요인 중 하나인 비사회적 시간에 주목한다. 비사회적 시간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시간빈곤 연구에서도 휴일 및 주말의 자유시간 및 노동시간 차이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둘째,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 특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장시간 노동 중에서도 시간빈곤자는 비사회적 시간대의 노동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앞서 예시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특히 간병인이나 돌봄노동자는 비사회적 시간대 노동과 불연속적 노동시간으로 인해 유급노동시간의 길이 좋지 않고, 자유시간도 유급노동시간 특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급적 시간배치의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로서 가용한 자료의 형태나 분석의 범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선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비사회적 노동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질문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시간빈곤 현황과 시간빈곤자의 개인적 특성은 무엇인가?

-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남성에 비하여 높을 것이며, 시간빈곤은 학력 및 직종과 같은 개인적 특성 과도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시간빈곤인 경우 비사회적 시간의 노동, 즉 주말 및 야간시간의 노동은 시간빈곤 상황인 경우에 비하여 더 긴가?

3) Anttila et al(2015)은 복지국가 비교연구의 시각에서 이러한 노동시간 배치형태 요인을 EU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군집화하여 비사회적 시간이 짧고 자율성, 업무강도, 공간적 유연성이 높은 중부유럽형, 그 외 동유럽 및 북유럽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 시간빈곤 상황일수록 비사회적 노동시간(야간 및 주말노동)이 비빈곤 상황에 비하여 길 것이다.
 - 반대로, 시간빈곤 상황일수록 자유시간은 짧을 것이다.
- 셋째, 시간빈곤 상황과 비사회적 시간의 노동에 관련되는 개인적 특성은 무엇인가?
- 시간빈곤일수록 비사회적 노동시간이 길 것이며 여기에는 성별, 가구 및 개인의 소득, 연령, 학력과 직종이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자료와 변수

1. 연구자료 : 제5차 생활시간조사(2019)

연구에 사용할 자료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이다. 개인의 시간 배분과 활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자료는 적지 않으나 생활시간조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첫째, 문답에 의한 기록보다 시간일지(time diary)를 작성하여 응답자의 기억 착오나 왜곡으로 인한 부정확성을 줄일 수 있으며 둘째, 시간량 외에 시간대 및 구체적인 행동 분류까지 파악할 수 있어 시간활용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시간일지 방식은 응답자가 2일에 걸쳐 자신의 시간 배분을 기록하므로 조사비용과 시간이 자기기입 방식보다 더 소요되며 이로 인하여 매년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최초의 생활시간조사는 1981년 KBS가 시행하여 당시에는 2년 주기로 진행하였다(김학선, 2020: 123). 이후 199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가 도입되어 5년 주기로 시행, 2019년 제5차 생활시간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며 5차 생활시간조사는 약 1만 2,000가구의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5차에 걸친 생활시간조사를 모두 사용한다면 시간빈곤 및 비사회적 노동시간의 특성을 시기별로 비교할 수 있어 유용할 것이다. 다만 생활시간조사는 패널조사가 아니므로 패널분석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두 개 이상 시점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항

을 넘는 많은 내용이 담기게 된다. 시기별 시간빈곤 특성의 변화 역시 상당한 함의가 있으나 시간적 변화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두며, 이전의 생활시간조사는 선행 연구에서도 적지 않게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기에 여기서는 가장 최근 공개된 5차 조사로 한정하였다.

5차 생활시간조사는 7월, 9월, 11월로 시기를 나누어 수행되었는데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 전체의 시간대 정보와 시간량 정보를 같이 활용하였으며, 개인의 시간빈곤 여부뿐 아니라 기혼자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시간빈곤 여부를 고려한 부부의 시간빈곤 여부도 파악하고자 하였기에 개인정보와 배우자 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연령은 20세에서 80세로, 유급노동시간 특성과 시간빈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취업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2. 변수와 분석방법

연구과제가 크게 세 가지이기에 분석 또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한 시간빈곤 분포와 특성을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시간빈곤을 다룬 국내의 많은 연구에서도 적지 않게 다룬 사항이다. 다만 5차 생활시간조사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다른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시간빈곤 상황별 비사회적 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시간빈곤 집단 간 t검정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다. 셋째, 시간빈곤과 비사회적 시간대 노동 간의 관계에 관련되는 개인 및 일자리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시간빈곤 집단 별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본조사인 생활시간조사의 특성상 회귀분석에는 표본가중치를 고려하였으며, 변수의 이분산을 고려하여 로버스트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주요 변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시간빈곤 여부는 시간량 자료를 토대로 하루의 전체 시간을 ① 유급노동 및 학습시간, ② 무급노동시간인 가사노동시간 및 돌봄노동시간, ③ 수면, 식사, 개인정비 등 필수유지시간, ④ 그 외 잔여시간(자유시간)으로 구분하고 응답일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⁴⁾ 전체 시간에서 ①~③

4)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일지(time diary) 방식으로 2일에 걸쳐 기록한다. 응답자는 ① 주중 2

의 합계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시간을 자유시간으로 정의, 자유시간 중위값의 60% 이하를 시간빈곤 임계선으로 정의하였다. 시간빈곤 임계선은 연구자에 따라 50~80%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Bardasi and Wodon, 2006; Chatzitheochari and Arber, 2012; Arora, 2015; 오혜은, 2017; 박세정, 2020; 조아라·김명희·권현정, 2020), OECD(2013)의 국가 간 비교자료에서도 사용된 기준인 60%를 따랐다.⁵⁾

야간노동시간은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시간대에 이루어진 유급노동 및 관련 활동을 포함한 시간을 계산하였다. 주말노동시간은 응답구분 중 평토일 문항을 활용하여 추출하였으며, 야간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대 자료를 활용하여 10분 단위의 행동 분류를 더하여 계산하였다.

개인 특성으로 성별(남성=1, 여성=0의 가변수), 연령대(20대 기준, 가변수) 등을 포함하였는데 사전 분석 결과 연령을 연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과 연령대로 구분한 분석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기술통계 및 집단 간 t검정에서는 분석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령대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화한 연령값을 사용하였다. 학력의 경우 생활시간조사에서 교육수준은 미취학부터 대학원 박사까지 총 8단계로 구별되는 것을 세 단계로 재구분하고, 혼인상태는 기혼 유배우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소득 정보를 100만 원 이하부터 800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 단위의 급간으로 조사하고 있다. 소득의 정확한 한계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사항이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정확한 한계

일, ② 주중 1일, 주말 1일 ③ 주말 2일 세 가지 중 한 경우로 응답하는데 주중과 주말의 시간활용 양상은 다르며 주말 2일만 응답한 경우 한 주의 온전한 시간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주중 2일 내지 주중 1일, 주말 1일에 응답한 경우로 한정, 주중에는 5, 주말에는 2로 가중하여 7~10일로 환산하고 주중 2일 응답자는 14,400분을, 주중 1일 주말 1일 응답자는 10,080분을 기준으로 자유시간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유는 주중과 주말의 시간활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주말노동시간을 분석에 포함하는 동시에 가급적 많은 사례를 검토하고자 주중 2일, 주중 1일(주말 1일) 응답자에 다른 방식으로 가중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5) 시간빈곤선을 중위값의 50%로 정의한 경우는 서지원(2015), 70%로 정의한 경우는 이경희·김근주(2018) 등이 있다. 또한 중위값으로 설정한 연구 역시 있다(김미영·박미려 2017 등). 사실 임계선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합의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여기서는 우선 선행연구의 일반적 경향과 OECD(2013)의 국가 간 비교 기준을 따랐음을 밝힌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기술통계

변수명	변수의 정의		M	SD	Min	Max	비고		
			n		%				
시간빈곤	① 유급노동 및 관련시간	시간빈곤=1	1,375		19.85		시간량자료		
	② 무급노동 및 관련 시간 ③ 필수유지시간 구분 후 응답 요일에 따라 가중하여 7일 168시간에서 차감한 뒤 자유시간이 중위값의 60% 이하	시간비빈곤=0	5,551		80.15				
야간노동시간	저녁 8시~익일 오전 8시 시간대 중 유급노동 관련 활동이 이루어진 시간(10분 단위) 합산		57.23	98.02	0	710	시간대자료		
주말노동시간	토요일 및 일요일 중 유급노동 관련 활동이 이루어진 시간(10분 단위)을 합산		297.57	277.50	0	1,030	시간대자료		
성별	남성(Ref)=1 여성=0		3,857 3,069		55.69 44.31				
	연령대	20대(Ref)=1 30대=2 40대=3 50대=4 60대 이상=5		454 1,371 1,950 1,838 1,313		6.56 19.79 28.15 26.54 18.96			
연령		연령 변수의 표준화 점수		-.3377	.8815	-2.3489	1.9149		
교육수준		고졸 이하(Ref)=1 전문대졸=2 4년제 졸업 이상=3		3,591 1,102 2,233		51.85 15.91 32.24			
		혼인상태	기혼 유배우자(Ref)=1 미혼, 이혼, 사별 및 별거=0		5,453 1,473		78.73 21.27		
			가구소득	월 가구소득 급간자료(100만 원 단위)를 표준화		.2906	.9514	-1.1357	1.9897
개인소득	개인 월소득 급간자료(100만 원 단위)를 표준화		.4360	.9871	-.8277	3.6133			
전일제 여부	전일제=1 그 외=0		5,402 1,524		78.00 22.00				
	종사상 지위	상용직=1 그 외=0		5,125 1,801		74.00 26.00			
직군		관리직/준전문가(Ref)		1,623		23.43			
	사무직		1,422		20.82				
	판매직/서비스직		1,296		18.71				
	기술직		1,339		19.33				
	단순노무직		1,226		17.70				
N			6,926(주중: 5,224, 주말: 1,702)						

- 주: 1) 연속변수의 각 셀은 평균(M), 표준편차(SD), 최대값(Max), 최소값(Min)임.
 2) 명목/범주형 변수의 각 셀은 범주별 빈도(frequency)와 백분율(%)임.
 3) 분석 사례 수는 6,926이지만 주말노동시간은 응답일이 토, 일인 경우로 한정되어 1,702임.

효과의 추정보다 특성 간 유의한 관계를 포착하는 데 있으므로 소득 변수를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사전 분석을 통하여 급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금액을 환산하는 경우, 3~4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계수의 유의성과 관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와 함의를 제시하는 데는 표준화 변수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4장의 회귀분석에서는 표준화한 변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외 일자리 변수는 취업인구를 기준으로 전일제 여부와 종사상 지위, 직업군을 포함하였는데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⁶⁾ 마지막으로 직업 분류는 대분류를 기준으로 조사된 정보를 크게 다섯 개 직군으로 다시 분류하여 관리직 및 준전문가, 사무직, 판매직 및 서비스직, 기술직, 단순노무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⁷⁾

IV. 분석 결과

1. 제5차 생활시간조사의 시간빈곤 분포와 특성

먼저 시간빈곤인구의 분포와 특성을 살펴보자. [그림 1]은 시간빈곤 상황별 각각의 시간구성을 상자도표(boxplot)로 나타낸 것이다(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부표 참조). 시간빈곤 상황과 시간비빈곤 상황 모두 필수유지시간 분포는 유

-
- 6)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외에도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며, 특히 1인 자영업자의 시간빈곤 실태는 중요한 연구 주제일 것이다. 다만 자영업자 변수를 고려할 시 전일제 여부와 공선성이 있는데, 전일제 여부는 유급노동시간과 관련된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를 누락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영업자 변수를 제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일제를 제외하고 상용직과 자영업자 변수로 추정 시 자영업자 변수는 크게 유의하지 않았으며 종사상 지위별 시간빈곤 여부를 살펴본 결과 상용직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시간 비율이 다소 높지만 1인 자영업자의 시간빈곤율은 비정규직보다 낮은 편이어서 분석에서는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만을 분석하였다.
- 7) 기존의 많은 연구가 시간빈곤의 가구적 차원에 주목하여 가구특성 변수, 가령 가족구성원 수, 미취학아동 수, 돌봄 필요인원의 수 등을 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여기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사전 분석 결과 이러한 가구 특성 변수가 비사회적 시간대 노동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미취학자녀나 돌봄 필요인원이 가구에 있는 경우 소득의 감소를 일부 감내하고서라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선택을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사하다. 또한 현신시간은 가장 적은 편이지만 이상치(outlier)가 적지 않다. 현신 시간이 적으면서 이상치가 많은 것은 시간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현신시간의 분포가 균등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자유시간이 유급노동 및 현신시간, 필수유지시간의 잔여시간으로 계산되었기에 자유시간의 이상치는 현신시간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시간빈곤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시간은 유급노동시간에 비하여 짧지만 시간빈곤인 경우 자유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의 중위값 차이가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⁸⁾

[그림 1] 시간빈곤 분류별 시간구성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시간 구성하에 구체적인 시간빈곤율은 어떻게 될까? <표 2>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시간빈곤율이다. 분석대상 6,926명 중 시간빈곤율은 약 19.85%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시간빈곤이다. 기존 연구가 대체로 시간빈곤율을 20~25% 내외로 추정된 것에 비하면 비슷하거나 근소하게 적다(오혜은,

8) <부표>를 기준으로 시간비빈곤인 경우 자유시간과 노동시간 평균의 차이는 약 537분, 1일 1.28시간 정도이다. 반면 시간빈곤은 유급노동시간이 1,546.37분가량 길어 1일 3.68시간가량 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7; 이경희 · 김근주, 2018 등). 조사자료의 차이도 있으나 대부분의 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므로 최근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시간빈곤율이 근소하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밝혔듯 시간빈곤 비중은 여성이 평균 24.21%로 남성보다 높고 남녀 모두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의 시간빈곤율이 높다.

<표 2>의 성별, 연령대별 시간빈곤의 특징으로 30대는 남성의 시간빈곤율이 높음에 따라 남녀 차이가 적으나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이는 분석대상이 취업자로 한정되어 조사대상 모두 유급노동에 시간을 배분하고 있으며, 연령대별 헌신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성은 대체로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20대 여성의 시간빈곤이 동 연령대 남성보다 높은 것은 이른 사회진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대에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결혼 및 출산, 육아, 복직의 생애주기 과정을 거치며 해당 시기에 육아와 가사, 일을 병행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성의 시간빈곤이 집중되는 30대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와 중첩되며, 따라서 여성의 시간빈곤은 육아/가사와 노동의 병행에서, 남성은 장시간 노동에서 시간빈곤이 비롯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 성별 및 연령대별 시간빈곤율

(단위 :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a)}
남성 (3,857)	시간 빈곤	35 17.07	212 25.63	185 16.47	126 12.61	74 10.53	632 16.39
	시간 비빈곤	170 82.93	615 74.37	938 83.53	873 87.39	629 89.47	3,225 83.61
Chi2(df=4)(p-value)		79.7104(.000)					
여성 (3,069)	시간 빈곤	67 26.91	187 34.38	200 24.18	203 24.20	86 14.10	743 24.21
	시간 비빈곤	182 73.09	357 65.63	627 75.82	636 75.80	524 85.90	2,326 75.79
Chi2(df=4)(p-value)		65.6137(.000)					

주 : 전체 시간빈곤율 : 19.85%.

한편 교육수준과 직종별 시간빈곤율을 살펴보면 중간수준 학력과 서비스 판매직, 사무직 시간빈곤율이 높다. 교육수준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간학력자의 시간빈곤율이 높다는 점과 고졸 이하 학력자의 시간빈곤율이 고학력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연령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시간빈곤율이 낮은 40대, 50대는 대학진학률이 높지 않았으며, 4년제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증가한 시기가 1990년대 초반 이후라는 점이 저학력자의 시간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원인으로 보인다.⁹⁾

다만 직종별 시간빈곤율은 뚜렷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관리직 및 (준)전문가의 시간빈곤율이 단순노무직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고 비숙련 사무직 및 서비스·판매직종의 시간빈곤율보다는 낮으나 현격한 차이는 아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전체적인 시간빈곤율은 이전의 다른 연구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근소하게 낮은 수준이다. 성별을 중심으로 한 시간빈곤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는 지면상 생략하였으나 가구소득 및 기혼

〈표 3〉 교육수준 및 직종별 시간빈곤율

(단위: %)

	교육수준				직종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 이상	계	관리/ (준) 전문가	사무	서비스/판매	기술	단순노무	계
시간 빈곤	715	248	412	1,375	310	286	294	265	220	1,375
	19.91	22.50	18.45	19.85	19.10	19.83	22.69	19.79	17.94	19.85
시간 비빈곤	2,876	854	1,821	5,551	1,313	1,156	1,002	1,074	1,006	5,551
	80.09	77.50	81.55	80.15	80.90	80.17	77.31	80.21	82.06	80.15
Chi2(df) (p-value)	7.6373(2)(.022)				9.9211(4)(0.042)					

주: 1) 각 셀의 첫 행은 빈도 수(n), 두 번째 행은 집단의 백분율(%)임.

2) 비경제활동인구는 직종 응답이 없으므로 직종계와 교육수준계는 차이가 있음.

9) 여기서는 생략하였으나 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면 전문대졸(29.63%)>고졸 이하(28.62%)>4년제 이상(20.19%) 순으로 시간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연령보다 고졸 이하와 4년제 이상 학력자의 격차가 벌어진다. 논문심사 과정 중 이 부분에 대해 날카롭게 논평해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여부에 의한 시간빈곤율도 크게 다르지 않아 남성은 월 가구소득 구간 300~600만 원인 경우, 여성은 500~800만 원인 경우 시간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남성 시간빈곤은 대체로 외벌이 가구이거나, 가구소득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을 때 주로 발생하는 반면, 여성은 맞벌이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 “가사노동+장시간 노동”의 조합으로 시간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시간빈곤 상황의 주말과 야간의 시간배분 현황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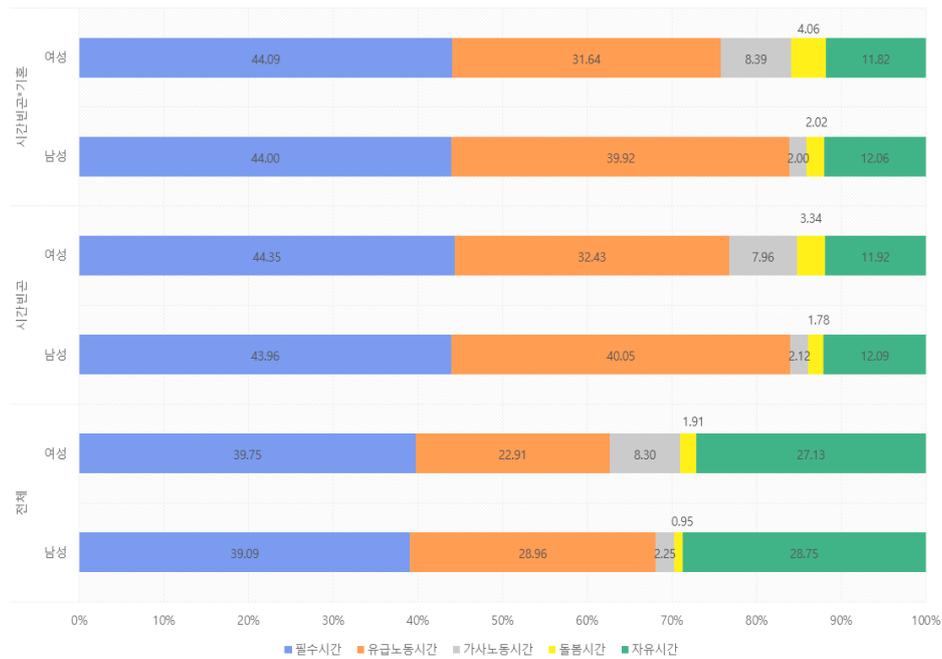
2. 시간빈곤인구의 시간배분과 비사회적 시간의 노동

먼저 가장 일반적인 일주일 전체의 시간배분 현황을 살펴보자. [그림 2]는 분석대상 전체의 시간배분 현황과 시간빈곤인의 시간배분, 기혼 시간빈곤인의 시간배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행동 분류는 기존의 시간빈곤 연구 및 [그림 1]과 동일하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주행동 한 가지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1]이 시간구성별 분포상의 특징을 보여준다면 [그림 2]는 각 시간빈곤 유형별 시간구성의 평균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별, 연령별 시간빈곤율을 나타낸 <표 2>에서 유추되는 사항의 연장선으로 기혼 여부에 따른 시간구성을 추가하였다. [그림 2]에서 확인한 점으로는 첫째, [그림 1]과 마찬가지로 필수시간에는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시간빈곤인 경우의 필수유지시간이 근소하게 길다. 필수시간은 1주 전체의 약 44%, 1일 평균 약 10.56시간을 차지한다. 이는 자기유지를 위한 활동이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 수면부족과 불규칙적인 식사 혹은 짧은 식사시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평균적인 필수유지시간은 대체로 유사하다.

둘째, 그러함에도 시간빈곤 집단과 시간비빈곤 집단의 큰 차이는 남성은 유급노동 및 관련 시간, 여성은 남성보다는 짧지만 적지 않은 유급노동 및 돌봄시간에서 발생하며, 셋째, 기혼인 경우에도 남성-장시간 노동, 여성-유급노동+가사/돌봄에의 시간배분이 시간빈곤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시간빈곤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은 1주일 기준 약 67.2시간, 주 7일 노동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여도 하루 9.6시간을 노동 및 노동준비, 학습에 시간을 할애한다. 주6일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하루 약 11.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빈곤

(그림 2) 시간빈곤인구의 시간구성 현황

(단위 : %)



여성은 기혼 기준 1주일 53.16시간 가량을 일하는데 이 역시도 ILO의 장시간 노동기준(주 48시간)을 넘는 수준이다. 또한 기혼 시간빈곤 여성의 1일 평균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은 2.98시간인 반면 남성의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은 1일 평균 0.96시간, 약 1시간이다. 넷째, 여성은 기혼인 경우 유급노동시간 비중이 근소하게 감소하지만(32.43%→31.64%), 대신 가사 및 돌봄 시간이 이보다 더 근소하게 늘어난다(11.3%→12.45%). 따라서 결혼 후 시간빈곤 가구의 시간배분이 남성은 극단적으로 유급노동에, 여성은 남성보다는 적지만 결코 짧지 않은 장시간 유급노동과 가사+육아의 이중부담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성별 및 연령대별 시간빈곤 현황을 살펴본 1절에서 유추한 점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평균 자유시간이 주당 약 46.93시간, 하루 6.7시간 내외인데 반하여 시간빈곤인의 자유시간은 주당 19.3시간, 하루에 채 3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림 2]의 분류가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주행동 한 가지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동시행동을 고려하여 자유시간의 질을 분석한다면

시간빈곤인의 자유시간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주중의 시간 배분에서도 시간빈곤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사회적 시간, 즉 야간과 주말의 시간활용은 어떻게 다른가? <표 4>는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주중 노동시간과 야간노동시간, 주말노동시간을 정리한 결과이다. 이집단 t검정 결과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비사회적 노동시간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시간비빈곤인 경우도 야간에는 49.712분, 주말에는 266.074분가량 일하며 시간비빈곤이라 하여 비사회적 시간의 노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간빈곤이 상대적 기준으로 정의되며 한국의 전반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자유시간이 많다 하여도 비사회적 시간의 노동이 없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든 시간빈곤이 시간비빈곤에 비하여 노동시간이 더 길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사회적 시간인 주중·주간보다 주말 및 야간 노동시간의 집단 간 차이가 더 크다. 집단 간 평균비에서 시간빈곤은 시간비빈곤에 비하여 주중·주간에는 1.37배 더 일하는 데 그치지만, 야간에는 1.76배, 주말에는 1.56배 더 일한다. 이 점에서 시간빈곤의 노동시간 특성은 사회적 시간보다 비사회적 시간과 더 면밀한 관계가 있다.

<표 4> 시간빈곤별 야간 및 주말노동시간 차이(집단 간 t검정)^{a)}

(단위: 분)

		N	mean	std.dev	t	% ^{b)}
주중 노동시간	시간빈곤	1,018	551.385	190.413	-21.692***	1.377
	시간비빈곤	4,206	400.483	231.824		
	전 체	5,224	429.889	232.165		
야간 노동시간 (주중+주말)	시간빈곤	1,375	87.564	121.602	-10.836***	1.761
	시간비빈곤	5,551	49.712	89.686		
	전 체	6,926	57.226	98.022		
주말 노동시간	시간빈곤	357	416.247	276.436	-9.1742***	1.564
	시간비빈곤	1,345	266.074	269.230		
	전 체	1,702	297.573	277.498		

주: 1) 집단 간 이분산을 가정함.

2) 각 노동시간 별 시간비빈곤 집단 평균에 대한 시간빈곤 평균의 비율.

*** p<0.001, ** p<0.01, * p<0.05.

<표 5> 시간빈곤별 주중 및 주말 자유시간 차이(집단 간 t검정)¹⁾

(단위: 분)

		N	mean	std.dev	t	% ²⁾
주중 자유시간	시간빈곤	1,018	80.010	58.979	56.741***	0.330
	시간비빈곤	4,206	242.328	141.589		
	전 체	5,224	210.697	144.748		
주말 자유시간	시간빈곤	357	113.866	94.786	27.311***	0.376
	시간비빈곤	1,345	302.863	174.821		
	전 체	1,702	263.219	178.754		

주: 1) 집단 간 이분산을 가정함.

2) 각 노동시간별 시간비빈곤 집단 평균에 대한 시간빈곤 평균의 비율.

*** p<0.001, ** p<0.01, * p<0.05.

반면 자유시간의 차이를 보면 시간빈곤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는 주중, 주말의 모든 경우에 유의하나 상대적으로 주말 자유시간의 차이는 적다. <표 5>에서 주말 자유시간은 시간빈곤인 경우 113.866분으로 시간비빈곤에 비하여 188.997분, 약 3시간가량 적으며 이는 시간비빈곤의 37.6% 수준인 반면, 주중 자유시간은 시간빈곤 집단이 시간비빈곤의 33%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주중의 자유시간이 더 적으며, 휴일노동보다 야간노동이 시간빈곤의 특성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시간빈곤 상황에서의 비사회적 노동과 시간빈곤인의 특성

기술통계적 특성과 집단 간 검정 결과 첫째, 남성의 시간빈곤 원인은 주로 장시간 노동에서, 여성의 시간빈곤은 남성보다는 짧으나 적지 않은 유급노동시간과 가사/돌봄시간에서 비롯된다. 둘째,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사회적 시간, 즉 주중·주간의 노동시간보다 비사회적 시간인 주말 및 야간노동시간에서 더 큰 차이가 발생한다.

보다 자세하게 시간빈곤 상황에서 비사회적 노동시간의 차이를 알아보자. <표 6>은 야간노동시간의 차이를 시간빈곤 여부에 따라 집단별로 분석하고, 이를 다시 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1)과 (4)에서 알 수 있듯 시간빈곤에 관계없이 남성의 야간노동시간이 더 길지만 시간비빈곤의 성별 격차보다 시간빈곤 상황의 성별 격차가 더 크다. 이는 국내 노동시간 연구가 밝힌 바 있듯 남성의 장시간 노동 경향이(가령 배규식 외, 2013 등) 비사회적 노동시간, 시간빈곤 상황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성별과 연령에 따라 시간빈곤율에 차이가 있음을 앞에서도 확인하였으며, 국내 시간빈곤 연구는 시간빈곤 여부에 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가령 박예은 외, 2015; 김미영·박미려, 2017 등), 비사회적 시간대의 노동시간에 있어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 경우 연령보다 일자리 특성이 유의하다는 점에서 연령효과보다는 생애주기에 따라 얻게 되는 서로 다른 일자리 특성 차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표 6>에서 눈여겨 볼 점은 시간빈곤 여성일 때와 시간비빈곤 남성일 때 야간노동시간 특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이 증가할수록 야간노동시간 역시 증가하며, 이렇게 월임금이 노동시간과 정적인 관계인 원인은 낮은 임금을 초과근무로 벌충하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개인소득과 야간노동 간 정적인 관계는 시간빈곤 중에는 여성인 경우에만 관찰된다.¹⁰⁾ 또한 직군별 시간빈곤율 차이에서 살펴보았듯 관리자와 전문가에 비하여 비숙련직의 야간노동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남성은 시간비빈곤인 경우 전문직과 사무직 간 야간노동시간 차이는 없으나 그 외 직종은 전문직보다 야간노동시간이 길고, 반대로 여성은 시간빈곤인 경우 직종 간 차이가 유의하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으로, 시간부족 상황을 초래하는 장시간 노동이라 하여도 남성은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주야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여성의 시간빈곤을 만드는 노동시간 특성은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의 야간노동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여성의 시간빈곤에는 야간노동시간의 차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10) 다만 소득과 시간빈곤여부, 야간노동시간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려면 시간당 임금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나 앞서 3장에서 밝혔듯 생활시간조사의 소득 정보가 급간으로 조사되기에 여기서는 시간당 임금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표 6> 시간빈곤 상황에서 야간노동의 특성

Y: 야간 노동시간		시간빈곤			시간비빈곤		
		(1)전체	(2)남성	(3)여성	(4)전체	(5)남성	(6)여성
성별		69.3549*** (10.5248)			26.2460*** (3.7853)		
연령(표준화)		10.2113 (5.7708)	11.4499 (9.4910)	10.0504 (5.9927)	-4.1475 (2.1585)	-4.1442 (3.3337)	-2.5655 (2.4881)
교육수준 (기준: 고졸 이하)	전대졸	10.5440 (13.2669)	12.9531 (21.3472)	9.5647 (15.5949)	-0.7105 (5.3790)	2.1500 (7.7342)	-7.9075 (6.8675)
	4년제	-5.5230 (11.4095)	-22.7333 (16.7681)	15.4560 (14.8026)	-14.8707*** (4.2524)	-16.3353** (5.6547)	-13.9056* (6.4563)
유배우자		-46.4181*** (12.7540)	-35.1951 (20.3902)	-35.9772* (14.8669)	-5.9956 (4.6319)	-2.4175 (7.1880)	-9.5146 (5.3973)
가구소득		7.3082 (5.8428)	29.2227** (10.3243)	-10.6210 (5.8046)	-2.8015 (2.0712)	-5.4574 (3.2387)	-0.3924 (2.5551)
개인소득		7.0567 (6.7482)	-9.7978 (10.8284)	23.6651** (7.5239)	9.2443*** (2.2914)	9.4019** (3.0910)	14.4041*** (3.8844)
전일제		-32.2510* (14.5539)	-63.8131* (30.2909)	-23.3033 (16.1108)	9.2005 (6.3384)	-2.0927 (12.0949)	14.1991* (5.7531)
정규직		31.7744** (11.9675)	40.7389 (21.4653)	29.5297* (13.9015)	6.2158 (5.4404)	10.1169 (9.1558)	0.2461 (5.3060)
직군 (기준: 관리· 전문직)	사무직	-14.9957 (8.4594)	-15.5780 (14.2205)	-4.7766 (9.1153)	-13.5751*** (3.8455)	-7.1140 (5.0173)	-23.5884*** (6.1393)
	판매 서비스	48.9516*** (14.6672)	57.8929 (29.5694)	48.9592** (15.6254)	22.6892*** (6.1819)	34.2493** (10.6487)	11.7671 (8.5665)
	기술	49.0400** (15.4173)	47.8293* (20.2919)	47.3878* (21.0598)	18.0538** (5.8555)	23.3377*** (6.9045)	3.3515 (9.8105)
	단순 노무	42.3131* (16.8714)	47.5012 (27.4523)	45.4487* (21.7502)	29.9911*** (6.6071)	39.1734*** (10.0265)	16.7574 (9.3190)
상수		79.2395*** (19.9112)	171.0666*** (36.8433)	63.1761** (21.5674)	21.9774*** (6.3345)	48.0447*** (9.6544)	34.9374*** (9.9871)
N		1,375	632	743	5,551	3,225	2,326
R ²		0.1470	0.0960	0.1187	0.0665	0.0396	0.0534
Adjusted-R ²		0.1390	0.0785	0.1040	0.0644	0.0360	0.0485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분석 결과는 표집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p<0.001, ** p<0.01, * p<0.05.

한편 <표 7>은 주말노동에 대한 시간빈곤의 특성을 보여준다. 집단 간 t검정 결과에서는 주말노동보다 야간노동이 시간빈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였으나 회귀모형의 조정된 결정계수(Adjusted-R2)를 기준으로 하면 시간빈곤에 따른 차이는 주말노동에서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을 분석한 모형의 결정계수, 즉 (3)과 (9), (6)과 (12)를 비교하면 야간노동보다 주말노동에서 시간빈곤 여성의 비사회적 노동시간 특성이 잘 드러난다. 시간빈곤 여성의

〈표 7〉 시간빈곤 상황에서 주말노동의 특성

Y: 주말 노동시간		시간빈곤			시간비빈곤		
		(7)전체	(8)남성	(9)여성	(10)전체	(11)남성	(12)여성
성별		67.6537* (32.3975)			55.6028* (21.9772)		
연령(표준화)		40.0947* (18.8741)	79.5140** (30.2673)	0.1254 (21.5065)	-25.0813* (10.2350)	-37.3139* (14.7673)	-0.9427 (14.1112)
교육수준 (기준: 고졸 이하)	전대졸	42.4144 (39.6400)	80.7118 (55.1916)	5.7778 (50.4257)	-5.8180 (27.7784)	-9.2972 (37.6786)	3.3612 (38.1070)
	4년제	8.7419 (44.1655)	-0.2006 (65.4798)	45.7955 (50.0396)	-21.9670 (25.0731)	-40.8504 (31.7359)	4.5167 (36.9165)
유배우자		-87.2839* (34.2490)	-82.2875 (51.3371)	-59.5858 (41.6382)	-13.7352 (23.1854)	-29.7160 (33.2616)	10.8167 (31.2251)
가구소득		-36.0022 (20.5734)	24.4898 (33.1338)	-73.1946** (24.6791)	-24.4301 (13.0936)	-45.1153* (21.1944)	-8.5402 (15.8725)
개인소득		43.6483* (20.9532)	-25.5636 (36.3007)	84.6625*** (18.6679)	18.9857 (15.2887)	24.4909 (20.5784)	41.8606 (26.4567)
전일제		33.8355 (51.9944)	16.6648 (98.4523)	50.1821 (65.2344)	79.9876*** (23.6569)	64.3783 (42.0973)	76.9829** (27.4438)
정규직		73.6474 (44.3012)	155.5867* (66.1794)	32.9078 (60.0966)	26.8001 (23.5536)	-10.1903 (38.9515)	55.1437* (27.3696)
직군 (기준: 관리· 전문직)	사무직	-29.7102 (44.5322)	-52.1488 (66.1162)	0.3846 (57.1854)	-6.0358 (28.8073)	17.6973 (36.6345)	-42.1584 (44.4296)
	판매 서비스	74.2608 (43.9526)	13.0462 (80.5599)	122.4129* (47.8864)	-6.8222 (32.2930)	-48.8850 (53.5463)	28.0814 (39.5011)
	기술	53.2294 (50.3353)	25.3295 (64.1728)	91.7303 (92.5380)	-3.8006 (30.6775)	-37.2097 (37.6252)	87.1288* (43.4516)
	단순 노무	126.9068** (48.0540)	39.1726 (71.4167)	187.8964*** (55.8030)	-6.7747 (33.0824)	-44.1470 (47.3426)	30.0051 (42.4742)
상수		399.3597*** (58.7656)	497.4542*** (117.3622)	345.2806*** (66.9777)	230.1721*** (31.6185)	361.9117*** (49.7319)	172.7405*** (41.9457)
N		357	158	199	1,345	768	577
R ²		0.1632	0.1196	0.2351	0.0701	0.0418	0.1003
Adjusted-R ²		0.1320	0.0467	0.1860	0.0610	0.0266	0.0812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분석 결과는 표집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 p<0.001, ** p<0.01, * p<0.05.

개인소득과 주말노동시간은 정적인 관계인 반면, 가구소득과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노동시간과 소득 간의 관계와도 유사하며, 시간빈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형 (7)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동시간과

소득의 관계가 주말인 경우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서 더 분명하다는 점은 일반적인 좋은 노동시간 외에 좋지 않은 노동시간대의 노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성별과 연령대의 일자리 선택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즉, 상대적으로 남성의 노동시간대가 보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판매 및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의 주말노동 경향 역시 시간빈곤인 경우에 관찰된다. 이는 <표 5>의 경향보다는 덜 하지만 주말노동시간에 있어서도 시간빈곤 여성의 노동이 남성보다 두드러진다. 다만 앞서 [그림 2]에서도 살펴보았듯, 시간빈곤의 일차적 원인이 남성은 초장시간 노동, 여성은 장시간 노동과 돌봄/가사의 이중적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빈곤과 비사회적 시간대의 노동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남성은 주야에 관계없이 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에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반면, 여성의 시간빈곤 원인 중 노동시간 측면은 비사회적 노동시간이 적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한다 볼 수 있다.

그 외 주말노동시간의 특성으로 야간노동에서는 크게 유의하지 않던 연령이 남성으로 대상을 한정할 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간빈곤 남성은 연령과 주말노동이 정적인 관계인 반면, 시간비빈곤 남성은 부적의 관계를 보인다. 앞서 성별 및 연령별 시간빈곤율의 특징상 20·30대의 시간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20·30대 후반까지는 주말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40대 이후 주말노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학력이 주말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남성인 경우에 연령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앞서 <표 3>에서 나타난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시간빈곤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주로 연령에 의한 효과(세대 간 학력 차이와 유급노동시간 차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과 함의

이 연구는 시간빈곤 연구에서 시간의 길이에만 주목하지 않고 특정 시간대의 시간 배분 차이에 주목하고자 비사회적 노동시간인 주말 및 야간노동시간을 결정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시간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여성의 시간빈곤은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남성은 30대에 시간빈곤이 집중되며 이는 남녀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둘째, 남성의 시간빈곤 원인은 장시간 유급노동인데 반해 여성은 시간빈곤 남성보다는 짧지만 적지 않은 유급노동과 가사/돌봄노동의 병행이 시간빈곤의 원인이다. 셋째, 시간빈곤 여부에 따라 주말 및 야간의 노동시간과 자유시간을 분석한 결과 시간빈곤 집단의 노동시간이 길고 자유시간이 적지만 주중의 노동시간보다 야간·주말의 비사회적 노동시간 차이가 더 크다. 넷째, 시간빈곤과 성별에 따라 주말 및 야간노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비사회적 노동시간은 남성이 더 길지만 비사회적 노동시간의 성별 격차는 시간빈곤 집단에서 더 큰 동시에 소득과 일자리, 종사상 지위에 의한 차이는 여성에게서 더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빈곤 남성은 주말 및 야간노동시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시간빈곤 여성은 단순노무직 및 서비스/판매직종 여성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비사회적 노동시간이 길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의 유급노동시간 구성과 분포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계의 주 생계부양자로 남성은 전체 노동시간의 길이와 비사회적 노동시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은 남성에 비해 덜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일자리 특성이 비숙련직이고 기존 연구와 같이 여성 가구주 시간빈곤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면, 비사회적 시간의 노동을 통해 임금소득을 벌충함에 따라 개인소득과는 정적인, 가구소득과는 부적인 관계가 발생한다. 요컨대 사회적 시간인 주중 유급노동시간보다 비사회적 시간의 노동이 시간빈곤과 시간비빈곤 집단, 시간빈곤 내 성별 격차가 더 잘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 연구는 시간빈곤의 질적 특성으로 비사회적 시간을 연구하였으나 한계와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우선 타이밍과 노동 강도, 공간적 유연성, 시간의 자율성 등 다양한 노동시간 배치를 일관된 차원으로 구성하여 시간빈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행동 역시 자유시간의 질과 시간주권을 위해 시간빈곤 연구의 시각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생활시간조사의 동시행동 문항과 시간대 자료의 동일활동 지속시간을 측정하면 동시행동과 시간 연속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변수를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및 감정 관련 문항에 연관하면 유급노동시간과 시간활용의 특성이 시간빈곤 및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 예상하는 시간활용 실태와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은 조금 더 속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렇듯 노동시간의 다양한 특성을 시간빈곤과 결합시키는 것은 이 연구의 향후 과제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9). 『플랫폼노동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김미영·박미려(2017).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시간빈곤 수준과 삶의 질: 개인유지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빈곤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1): 45~55.
- 김학선(2020). 『24시간 시대의 탄생: 1980년대의 시간정치』. 파주: 창비.
- 노혜진(2013).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을 중심으로 본 빈곤여성의 삶의 질」. 『사회복지연구』 44(1): 61~87.
- 노혜진·김교성(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 박세정(2020). 「소득계층에 따른 시간빈곤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40(1): 206~237.
- 박예은·윤미·이예솔·이효진(2015). 「시간빈곤이 일가족양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취업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58~176.
- 박예은·이미영·이초록(2017). 「취업자의 시간빈곤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537~551.
- 배규식·조성재·홍민기·김기민·전인·이영호·권현지·진숙경·이문범(2013).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장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1』. 한국노동연구원.
- 서지원(2015). 「발표 1: 맞벌이가정의 시간사용 실태와 시간빈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87~103.
- 오혜은(2017). 「시간과 소득의 동시빈곤에 관한 연구: 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 이경희 · 김근주(2018). 『시간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조아라 · 김명희 · 권현정(20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 『보건사회연구』 40 (3) : 48~84.
- Anttila, T., T. Oinas, M. Tammelin, and J. Nätti(2015). “Working-Time Regimes and Work-Life Balance in Europ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pp.1~12.
- Arora, D.(2015), “Gender Differences in Time-poverty in Rural Mozambique”. *Review of Social Economy* 73 (2) : 196~221.
- Bardasi, Elena and Q. Wodon(2006). “Measuring Time Poverty and Analyzing Its Determinants : Concepts and Application to Guinea”. in Blackden, C. and Q. Wodon, (eds.)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Working Paper 73 : 75~95.
- Bittman, M.(2005) “Sunday Working and Family Time”. *Labour and Industry* 16(1) : 59~83.
- Bittman, M. and J. Wajcman(2000). “The Rush Hour :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 (1) : 165~189.
- Brady, H. VE., S. Verba, and K. L. Scholzman(1995). “Beyond SES :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 (2) : 271~294.
- Burchardt, T.(2008). “Time and income poverty”. CASE report 57.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 Chatzitheochari, S. and S. Arber(2012). “Class, Gender and Time Poverty : A Time-use Analysis of British Workers’ Free Time Resourc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3 (3) : 451~471.
- Chopra, D. and E. Zambelli(2017). “No time to rest : Women’s Lived Experiences of Balancing Paid Work Andunpaid Care Work”. *Global Synthesis Report for Women’s Economic Empowerment Policy and Programming.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 Choudhary, N. and D. Parthasarathy(2007). “Gender, Work and Household Food Securit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42 (6) : 523~531.

- Chung, H. and K. Tjeldens(2013). “Working Time Flexibility Components and Working Time Regimes in Europe: Using Company-level Data Across 21 Countr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4(7): 1418~1434.
- Dong, X. and X. An(2015). “Gender Patterns and Value of Unpaid Care Work: Finding from China’s First Large-scale Time Use Survey”.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61(3): 540~560.
- Douthitt, R. A.(2000). “Time to Do the Chores? Factoring Home-production Needs Into Measures of Povert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1(1): 7~22.
- Fagan, C., T. Warren and I. McAllister(2001). “More or Less Work? Gender, Employment and Working-time Preferences in Europe”. Luxembourg: European Foundation on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 Floro, M. S.(1995). “Women’s Well-being, Poverty, and Work Intensity”. *Feminist Economics* 1(3): 1~25.
- Goodin, R., M. Bittman and P. Saunders(2005). “The Time-Pressure Illusion: Discretionary Time VS. Free Time”. *Social Indicator Research* 73: 43~70.
- Hamermesh, D. and J. Lee(2007). “Stressed Out on Four Continents: Time Crunch or Yuppie Kvetch?”.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9(2): 374~383.
- Harvey, A. S. and A. K. Mukhopadhyay(2007). “When Twenty-Four Hours is Not Enough: Time Poverty of Working Par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57~77.
- Irani, L. and V. Vemireddy(2021). “Getting the Measurement Right! Quantifying Time Poverty and Multitasking from Childcare among mother with Children across Different Age Groups in Rural North India”. *Asian Population Studies* 17(1): 94~116.
- Jain, M. and M. Zeller(2015). *Effect of Maternal Time Use on Food Intake of Young Children in Bangladesh: IFPRI*.
- Kalenkoski, C. M., K. S. Hamrick and M. Andrews(2011). “Time Poverty Thresholds and Rates for the US Popu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4(1): 129~155.

- McGinnity, F. and E. Calvert(2009), “Work-Life Conflict and Social Inequality in Western Europe”. *Social Indicator Research* 93 : 489~508.
- Merz, J. and T. Rathjan(2009). “Time and Income poverty : an Interdependent Multidimensional Poverty Approach with German Time Use Diary Data”. *IZA Discussion Paper*. p.4337.
- Noh, H. and K. Kim(2015). “Revisiting the ‘Feminisation of Poverty’ in Korea : Focused on Time Use and Time Poverty”.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25 (2) : 96~110.
- OECD(2013).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Paris : OECD Publishing.
- Reisch, L. A.(2001). “Time and Wealth : The Role of Time and Temporalities for Sustainable Patterns of Consumption”. *Time and Society* 10 (123) : 367~ 385.
- Sidh, S. and S. Basu(2011). “Women’s Contribution to Household Food and Economic Security : A Study in the Garhwal Himalayas, India” *Mountain Research and Development* 31 (2) : 102~111.
- Sousa-Poza, A., H. Schmid, and R. Widmer(2001). “The Allocation and Value of Time Assigned to Housework and Child-care : An Analysis for Switzerland”.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4 : 599~618.
- Sullivan, O.(1996). “Time Co-ordination, the Domestic Division of Labour and Affective Relations : Time Use and the Enjoyment of Activities within Couples”. *Sociology* 30 (1) : 79~100.
- Vickery, C.(1977). “The Time-poor : a New Look at Poverty”. *Journal of Human Resource* 12 (1) : 27~48.
- Warren, T.(2003). “Class-and Gender-based Working time? Time Poverty and the Division of Domestic Labour”. *Sociology* 37 (4) : 733~752.
- Zilanawala, A.(2016). “Womens Time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 Differences by Parenthood an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37 (3) : 369~ 392.

〈부표〉 시간빈곤 상황별 각 구성시간의 기술통계

		N	Min	1Q (25%)	2Q (median)	mean	std.dev	3Q (75%)	Max
전체	자유시간	6,926	0	1,260	1,830	2,001.419	1,072.768	2,520	8,300
	노동시간		0	500	2,350	1,878.015	1,276.793	2,850	5,850
	헌신시간		0	50	300	448.351	520.400	650	4,100
시간 빈곤	자유시간	1,375	0	600	840	774.4	266.520	1,000	1,130
	노동시간		0	1,320	2,650	2,320.771	1,269.234	3,250	5,850
	헌신시간		0	80	350	508.604	537.612	760	3,650
시간 비빈 곤	자유시간	5,551	1,140	1,600	2,060	2,305.356	976.199	2,700	8,300
	노동시간		0	160	2,250	1,768.343	1,254.856	2,750	5,050
	헌신시간		0	50	260	433.426	515.010	620	4,100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orking Time in Time Poverty

Shin, Youngmin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unsocial hours working in time poverty. Time poverty is caused by long working hours for male and long working hours and dual burden of caring and housework for female. It has not been studied that time allocation according to time zones of time-poor individuals and their difference, in spite of existing researches find out the cause, characteristics of time poverty and the relation time poverty and life-work balances and so 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poverty and various working time arrangements, among which unsocial hour labor. As a result of an analysis using time-zone data and time-quantity data in the 5th Living Time Survey(2019), the time-poverty rate is about 20%, and the time poverty rate is higher for women, 30s, vocational college graduate, and unskilled workers. In case of time poverty, the difference between weekend work and night work is relatively larger compared to the difference weekly work in non-poverty situation. In the regression analysis by time poverty group, the primary cause of long-time work at night and weekends was from job differences, while differences in weekend and night time work were only significant for women in time poverty situation. This result is that men are in general long working hour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in time poverty, and there is not much variation between individuals in working hours, whereas women fall into time poverty when working long hours as well as housekeeping and caring.

Keywords : time-poor, unsocial hour, working time arrangements, free time, long working hour